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고령층 다수인 농업인들의 번거로움 해소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

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

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태풍·장마 이겨낸 우리 과일로 추석에 풍성하게’

농진청, 과일 고르는 요령 소개

사과, 꼭지에 푸른색 도는 것이 ‘싱싱’

배, 곁에 미세한 검은 균열 없는 것이 좋아

포도, 껍질 색 진하고 송이 크기 적당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을 앞두고 과일 고르는 요령을 소개하며,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

사과는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싱싱하고, 꼭지가 시들고 색이 변한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과일이다. 국산 사과 ‘홍로’는 9월 상·중순에 익는 품종으로, 크기는 300g 내외이다.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이리수’도 지역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배는 껍질 색과 상관없이 전체적

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곁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일부 농가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배는 껍질 색이 어느 정도 탁하고 진한 대신에 맛은 더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해 구매한다.

추석에 맛볼 수 있는 배 품종으로는 ‘신고’와 국산 ‘황금배’, ‘화산’ 등이 있다.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신고’는 550g 내외가 좋다. 9월 중순에 익는 ‘황금배’는 450g 내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확하는 ‘화산’은 540g 내외로 고풍다.

포도는 껍질 색이 진하고 알이 굵으며 송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것을 고른다. 송이가 크고 알이 지나치게 많으면, 포도송이 속에 덜 익은 알이 많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샤인머스켓’은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고, 적당한 송이 무게는 500~700g 정도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과수과장은 “올해 4월 낮은 기온과 늦여름 태풍으로 낙과(열매 떨어짐) 피해가 컸지만, 추석이 평년보다 늦은 탓에 사과, 배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과일 생육 기간이 길어진 만큼 당도 등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산 과일 구매로 어려운 과수 농가를 돕고, 가족 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진 왼쪽부터)롯데백화점 전주점 박희진 부점장, 장계농협 객점용 조합장, 농협장수군지부 김태호 지부장, 장수군 장영수 군수,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 롯데백화점 전주점 신혜경 팀장.

‘장수 농특산물로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장수군-NH농협 장수지부, 롯데백 전주점서 특별판매전 실시

NH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와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오는 27일 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장수군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객점용)과 함께 기획한 장수군 우수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별 판매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레드푸드 농산물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으로 이용해 만든 가공품 선물세트(25개 품목)를 중심으로 판매 중에 있으며, 장수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확대 목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장수군은 해발 50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덕분에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인기가 높다.

NH농협장수군지부와 장수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상품 판매 연계를 통한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장수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세상에 빛을, 이웃에 희망을’

한전 전북, ‘행복에너지 드림’ 사회공헌활동 나서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는 ‘세상에 빛을 이웃에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전북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40세대를 대상으로 7,000만원 상당의 소형태양광(600W) 설치 ‘행복에너지 드림사업’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한전 전북본부는 전북도, 전기안전공사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추진을 위해 이날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를 맡았고, 한전 전북본부는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선정 및 자재구매, 생필품 제공 등을 지원하며, 전기안전공사 협회는 태양광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를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보급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섭 본부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소형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필리핀 메트로뱅크와
외화송금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필리핀 메트로뱅크(METRO BANK)와 해외송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필리핀으로 송금을 보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저렴하고 빠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보통 2~3일 소요되는 필리핀 송금은 메트로뱅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 당일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중계은행 수수료도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일반 해외송금에 비해 저렴하다. /김윤상 기자



남원 춘향골농협

수해피해 구호물품 전달

남원 춘향골농협(조합장 임승규)은 22일 관내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총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북적십자에 전달했다.

춘향골 농협은 수마(水魔)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구호물품지원, 임직원 일손돕기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승규 조합장은 “농가와 함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에서 인적 및 물적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우정청, 추석 선물택배 배송 총력

전북우정청(청장 김홍재)은 추석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김홍재 청장과 직원들이 추석 소포우편물이 폭주하는 21일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밤 늦게까지 추석 소포우편물 특별소통 지원에 나섰다.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이날 우체국소핑과 추석선물 등 전북지역 소포우편물의 일일 최대 처리물량은 평소보다 2배 많은 10만 건에 달하고, 기간 중 총 물량이 117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서, 증가한 물량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한편, 현장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분류?·배달 지원인력 131명을 소통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김홍재 청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고객의 소중한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객들은 25일부터 생물 등 부패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되므로 이 시기를 피해 접수해 줄 것과 수취인 부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